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

결	담당자	실장	사업단장
	8월 13일	8월 18일	8월 18일
재	박래설	구명서	박훈

1. 출장개요

출장목적	AOGS 2026 참석 및 발표		
출장일정	2026. 8. 1.~2026. 8. 8.(7박 8일)		
성명		소속	직급(직위)
박래설		수치모델실 양상블응용팀	책임급연구원(팀장)
방문기관 (또는 회의장소)	후쿠오카 컨벤션센터 (후쿠오카 국제회의장)		
출발지	인천	도착지	후쿠오카, 일본

2. 업무수행내용

가. 출장 배경 및 목적

- AOGS 2026 Annual Meeting (이하 AOGS 2026)은 Asia Oceania Geosciences Society가 주관하는 연례 회의로 대기, 생물, 수문, 해양, 행성, 지구 과학 등 8개 지구과학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연구한 결과와 최신기술 발전을 공유하고, 전문가들 간의 아시아-태평양 네트워킹을 촉진할 수 있는 대규모 지구과학 학회이기에 차세대수치예보모델사업단의 그 간의 성과를 주요 기관 및 연구자에게 공유하고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참석하였음.

나. 주요 업무 수행 사항

- AOGS2026의 사업단 참석 인원은 1명이기에 가능한 모든 사업성과를 발표에서 언급할 수 있도록 발표 자료를 구성하여 구도 발표를 수행함. 사업단에서 개발한 전주기예측체계에 대한 설명과 주요 성능 이슈, 개발 계획 등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향후 개발 방향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사업단의 AI 활용 계획과 응용모델 개발 계획 등에 대한 질의 및 응답이 이루어짐.
- 도시규모 모델에 대한 논의(부경대학교 김재진 교수): 기후변화와 함께 지역규모 예측의 어려움이 극명하게 두드러지면서, 지역모델과 LES 모델 사이의 공간규모에 대한 모델링이 필요하며, 이러한 부분도 사업단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 영역으로 판단됨.
- 인공지능 모델과 역학모델의 역할 논의(서울대학교 손석우, 세종대학교 정지훈 교수): 이번 AOGS에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에 대한 발표가 매우 많음. 인공지능 기반의 중기 및 연장중기 모델의

예측성능 극대화과 함께 역학기반의 모델이 자체적으로 역할을 정립하여 나아갈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일본의 초고해상도 재분석장 생산 시도는 그 예로 들수 있으며, 역학모델의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명확하게 정리하여 외부에 제공할 필요가 있음.

3. 출장성과·시사점 및 향후 업무 활용 계획

가. 출장성과·시사점

○ 성과 홍보

- 차세대수치예보모델사업단의 최종 성과물인 전주기예측시스템의 전반을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의 주요 기관 및 연구자에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였음.

○ 협업 체계 구축

- 동경대학교에서 생산 중인 지역규모 재분석자료의 확보 및 협업을 위한 기초 마련.

나. 향후 업무 활용 계획

○ 응용모델 개발 시 유의점

- 향후 개발 예정인 사업단 모델 기반의 응용모델의 운영을 위한 고비용에 대한 우려가 높으며, 이를 위해 모델의 경량화에 대한 고민이 내부적으로 필요함.